



- ▶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북부산족마을에 가슴 뭉클한 인술
- ▶ 업무협약을 통한 의료네트워크 구축과 '선진의료기술'전파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태국을 찾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의료복지 향상과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병원장 이상홍 교수를 단장으로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와 소아청소년과 양은석 교수, 응급의학과 조수형 교수, 중환자실 전담의 안영준 교수, 순환기내과 기영재 교수, 외과 김민성 교수 등 의사와 간호사, 행정진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했다.

봉사단은 태국 치앙마이 한인회를 찾아 80여명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고국의 선진의료기술을 제공하고, 태국 맥코믹병원 의료봉사팀과 함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북부산족마을인 '후어라오 마을'과 '매병 마을'을 방문하여 혈압 및 당뇨 검사, 심전도 · 초음파 검사와 의료상담, 응급처치 등 '후어라오 마을'에서는 120여명, '매병 마을'에서는 180여명을 진료했으며, 각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축구공과 학용품, 의류 등 기증품을 전달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태국 맥코믹병원과 ▲의사 교환 연수 프로그램 ▲학술 교류 활동 ▲

정기검진 등 양측 기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국 치앙마이 한인회와 진료협정을 체결하여 치앙마이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진료지원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밖에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와 중환자실 전담의 안영준 교수의 학술 교류 세미나를 통해 맥코믹병원 40여명의 의사들에게 조선대병원의 선진 의료기술을 전파하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상홍 병원장은 "이번 태국 의료봉사활동으로 태국의 소외된 의료취약 계층에게 온정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다."며 "맥코믹병원과 맺어진 협약은 단순히 병원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화합에도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끊임없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의 의학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캄보디아, 몽골, 네팔 등 의료취약지역 및 긴급재난지역을 찾아 구호활동 등을 통해 사랑의 인술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과 기증품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업무협약식 및 학술 교류 세미나 (2017.10.17 ~ 10.22)



이번 일정중에 태국 맥코믹병원과 ▲의사 교환 연수 프로그램 ▲학술 교류 활동 ▲ 정기검진 등 양측 기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의료장비 및 물품을 기증했다.

그리고 치앙마이한인회와 진료협약을 체결하여 치앙마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진료지원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

속했다.

또한, 맥코믹병원과 새롭게 맺어진 의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의 'Anterolateral approach for Pilon fractures'와 중환자실 전담의 안영준 교수의 'Medical Education in Korea'라는 주제로 학술 교류 세미나를 열어 맥코믹병원 40여명의 의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 태국 의료봉사 활동 사항(2017.10.17~10.22) ○



이준영 교수



이상홍 병원장

의료봉사단은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함께 웃으며  
경계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된다.



양은석 교수



조수형 교수



안영준 교수

치앙마이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북부산족마을  
주민들은 조선대병원을 받기며 따뜻한 의료손  
길에 행복감을 느낀다.



기영재 교수

온정을 담은 의류와 축구공, 학용품등을 받은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개한다.



김민성 교수



기증품 전달



박진영 심교사



##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암센터]

## 호남최초 인공지능암센터 개소

- ▶ 광주·전남 및 전북 권역 최초 'IBM 왓슨포온콜로지' 활용
- ▶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인공지능, 암환자에게 최적의 처방할 수 있게 의사 도와... 서울까지 가는 번거로움 해소"



인공지능을 활용한 암 진료가 9월 25일, 광주·전남 및 전북 권역 최초로 시작됐다.

이날 진행된 개소식에는 강동완 조선대학교총장, 이상홍 조선대병원장, 박송미 한국IBM상무 등 많은 관계자 및 환자와 보호자들께서 참관하여 지역 내 첫 도입한 IBM 왓슨 포 온콜로지에 대한 기대감을 엿 볼 수 있었다.

병원 본관 1층에 자리 잡은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 암센터(이하 인공지능 암센터)'는 왓슨 포 온콜로지를 위한 전문 시스템 구축과 종양내과, 종양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의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란 보고서를 통해 의료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선대병원이 이번에 광주·전남 및 전북권역에서 최초로 도입한 왓슨 포 온콜로지는 300개 이상의 의학 학술지와 200개 이상의 의학교과서를 포함해 1,500만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의료정보를 입력하여 학습하였고, 제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공지능기반정밀의료암센터장 박치영 교수(종양혈액내과)는 "과거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학제 팀과 왓슨 포 온콜로지의 적절한 적용으로 우리 지역은 물론 국내의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상홍 병원장은 "심평원에서 실시한 적정성 평가결과, '위, 폐, 대장, 유방'항목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수도권 대학병원 임상교수 출신의 암 의료진과 인공지능 왓슨을 바탕으로 암환자들이 서울까지 힘들게 다니는 어려움을 타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개소식 가져

9월 21일, 병원 본관 2층에서 광주광역시 박병호 부시장,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 등 유관기관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 10월에 조선대병원이 광역치매센터로 선정되어 8억 1천만원의 설치비를 포함, 3년간 총 26억원의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 중 최대 규모로 교육실, 회의실, 운동프로그램 개발실, 영양프로그램 개발실, 정보도서관, 상담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광주는 물론 전남권 지역 주민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치매의 예방/조기진단/관리 등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상홍 병원장은 "광주지역에는 16,000여명의 치매환자들과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5만여명의 환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예방과 교육 및 최선의 치료를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고, 광역치매센터장 추일한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지속 가능한 치매관리 서비스로 치매로부터 고통 받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겠다"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전국 최초로 치매전문병동을 개소하여 다중 CCTV 모니터링시스템, 안전 바닥과 벽면, 지남력 회복을 위한 자연채광시스템 등을 갖춰 운영해오고 있다.

## 오송 주몽골대한민국대사 방문

- ▶ 몽골과의 의료협력에 깊은 감사 전해
- ▶ 몽골 의료연수의 격려 및 앞으로 외교적 가교역할 기대..



오송 주몽골대한민국대사 일행이 10월 18일 오후 병원을 방문해 의료협력 및 연수의 교육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박찬국 부원장을 비롯한 여럿 집행부는 오송 대사, 정형식 조선대 부총장을 모시고 병원의 현황 및 해외의료봉사와 한·몽 연수프로젝트, 몽골 의사 연수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송 대사는 "그동안 조선대병원이 몽골과의 의료협력은 물론 몽골의 의료발전을 위해 의사 교육에 매진해 준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협력을 토대로 양국이 더욱 공고한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선대병원은 몽골 제1중앙병원을 비롯 국립외상센터, 국립모자병원, 과학기술대학교, 국립암센터 등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박찬국 부원장 역시 "그동안 몽골과의 활발한 MOU체결과 의료교류를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며, 몽골 의료발전에 더욱 보탬이 되겠다"며 멀리 찾아온 대사 일행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제3회 '염증성 장질환' 건강강좌 성료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은 의료인으로서 알아야 할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주제로 26일 오후 4시에 하종현홀에서 건강 강좌를 개최하였다. 염증성 장질환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복통, 설사, 혈변, 식욕 감소, 체중 감소 등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는 만성적인 질환이다.

최근 가수 윤종신씨의 발언으로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크론병을 포함하여 염증성 장질환의 증가는 서구화된 식습관, 스트레스, 음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젊은 층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날 강좌는 ▲염증성 장질환이란 무엇인가? ▲염증성 장질환 진단 ▲염증성 장질환의 약물치료 ▲염증성 장질환의 비약물치료 순으로 진행하며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유익한 건강정보를 전달했다.

강의를 맡은 조선대병원 소화기내과장 이준 교수는 "대장내시경을 무서워 하지 말고, 조기에 정확히 진단을 하여 장누공, 협착과 같은 합병증 발생을 낮춰야 한다"며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고 힘주어 강조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염증성 장질환 환자 배려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교육' 강의 실시

9월 19일(화)~20일(수) 2일간, 병원 하종현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교직원들이 갖춰야 할 의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란지교SNC컨설팅 정세웅 이사를 초빙하여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강의는 병원에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개념과 개인정보의 관리 실태, 정보 관리 방법, 처벌 사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이후에는 그동안 병원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 했다.

교육을 주최한 김부성 의무기록팀장은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잘 갖춰져 있지만 최근에 이르러 다양한 형태의 정보관리가 이루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며 "전 교직원이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며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대장암 관련 궁금증 해결을 위한 강좌 개최

10월 20일 오후 2시에 병원 2층 하종현홀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장암 관련 다양한 궁금증과 예방법등을 알리기 위해 강좌를 개최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한국인의 주요 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장암은 대장내시경을 통한 조기에 발견이 가능함에도, 검사의 번거로움과 불편함등으로 조기에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날 강의를 진행한 소화기센터에서는 ▲대장암의 예방 ▲대장암 선별을 위한 대변검사 ▲대장암 선별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 ▲대장내시경 관련 이슈와 궁금증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재밌고 유익한 2시간의 강좌가 이뤄졌으며 궁금증이 해결된 환자 및 보호자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초청세미나 개최



9월 8일 하종현홀에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세의료원 국제협력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미래전략실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의료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윤영설 교수와, 현재 서울 제이에스병원장으로 있는 송준섭 원장을 초청하여 이뤄졌다.

기회를 잡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특성화된 아이템으로 해당 국가별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함을 역설한 자리에서, 특히 윤영설 교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인증프로그램 및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송준섭 원장은 과거 2002년 월드컵 당시, 즐기세포를 이용한 허딩크 감독의 무릎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국내 의료수준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게 되었음을 이야기 하며 세미나에 모인 많은 교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상홍 병원장은 "현재 우리 조선대병원은 국내 유수의 다른 병원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하지만,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며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조선대병원만의 특색 있는 아이템으로 어려움을 타개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 광주테크노파크와 3D융합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0월 11일 12시에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배정찬)에서 열린 '광주지역 생체의료 3D융합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내 대표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조선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도 참석하여 광주테크노파크와의 상호 업무 협력을 통한 생체의료분야 발전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 환자 맞춤형 의료용품 제작 ▲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컨설팅 ▲ 3D콘텐츠(VR/AR) 및 3D프린팅 등 고부가가치 의료소재 공동기술개발 ▲ 생체의료 관련 신사업 발굴 및 공동기획 ▲ 관련 정보 및 인적 교류 등 각 기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상홍 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3D기술을 통한 적극적인 환자 맞춤형 의료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2017 시니어·의료산업 박람회에 참여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주최한 「2017 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에 참여했다.

전국 치매센터 중 가장 큰 규모로 오픈한 '광역치매센터'와 호남지역 최초로 'IBM사의 왓슨포온콜로지'를 도입 및 진료를 개시한 인공지능기반정밀의료암센터(이하 인공지능암센터)를 중점으로 홍보했으며, 이를 통해 방문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호남지역 최초로 IBM 왓슨포온콜로지를 도입하고 관련 진료과와 다학제 시스템을 구축한 인공지능 암센터에 많은 문의가 이뤄져 호남지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암 치료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이상홍 병원장은 "이러한 의료산업 박람회를 통해,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산업의 활성화 및 새로운 의료기술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천사의 마음 '간호 1004day' 성료



### ▶ 건강한 목 디스크 관리를 위한 행복점검

10월 17일 오후 2시 신관 1층에서 건강한 목 디스크 관리를 위한 1004day행사를 가졌다.

간호부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기본적인 혈압·혈당 체크와 더불어 바른 목 관리를 위한 자세교육 및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등을 참가자와 직접 체험하며 방문한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병원 진료 후 방문한 김OO씨(67세, 남)는 "혈압·혈당 체크는 물론 바른 자세의 스트레칭을 직접 받아보니 내 평상시 자세가 좋지 않았음을 알았고, 앞으로 꾸준히 해야겠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기정숙 간호부장은 "목 디스크 관리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며 자신의 건강을 항상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간호사회는 매년 10월을 '천사데이'로 지정하고 조선대병원 간호부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체험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조선대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 완도군 대모도 도민들에 의료서비스 제공



조선대병원 어업안전보건센터(센터장 이철갑 교수)는 9월 6일 전남 완도군 대모도 모서리 도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낙도 의료서비스'를 실시했다.

의료취약계층인 대모도 도민들에 혈압 및 혈당 측정, 진찰, 뇌심혈관계 교육을 하고, 봉세웅 물리치료사의 목지압기 및 스트레칭기를 이용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해 관절 질환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완도군 보건의료원 김태익 한의사가 진맥과 침술 등의 한의학 서비스도 제공해 도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조선대병원 어업안전센터의 '찾아가는 낙도 의료서비스'는 지난 6월에도 완도군 덕우도와 충도를 방문하여 의료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 제26회 광주의사의 날 체육대회 참가



10월 22일 남부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6회 광주의사의 날 및 무등의림상 시상식'에 참가했다. 광주의사의 날은 한 해동안 의료발전과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온 의료인들을 격려하고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의사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이날 체육대회는 조선대병원·전남대병원·광주기독병원등 특별분회에서 회원과 직원 및 가족 800여명이 참여했다. 조선대병원은 족구·축구 승부차기·줄다리기·단체 줄넘기등 4개 종목에 참가했으나 아쉽게 특별분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체육대회에 앞서 무등의림상 시상식에서 소아청소년과 문경래 교수가 학술상을 수상했다.

문경래 교수는 140여편의 국내외 논문과 265건의 학술발표, 소아과학 교과서 10여편의 저서를 집필하는

등 의학발전을 견인했고, 조선대병원 의료봉사단을 창설하여 국내외적으로 의료취약계층에게 사랑의 인술을 제공했다.

순환기내과 고영엽 교수,  
세계인명사전  
10년 연속 등재

순환기내과 고영엽 교수

조선대학교병원은 순환기내과 고영엽 교수가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마르퀴스후즈 후 인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판에 등재되어, 2009년부터 10년 연속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고영엽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모두에 이름을 올리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금년 4월에는 마르퀴스후즈후 2017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마르퀴스 후즈후'는 1899년부터 발간되었으며, 해마다 세계 215개국의 과학자, 의학자, 발명가, 작가, 예술인, 정치, 종교지도자 등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을 엄선해 프로필과 업적 등을 소개하고 있다.

외과 김권천 교수,  
김유석 교수  
'유방학 교과서' 공저

외과 김권천 교수



외과 김유석 교수



외과의 김권천 교수와 김유석 교수는 최근 유방 관련 진료에 지침이 될 '유방학 교과서(4판)'를 집필했다고 밝혔다. 이번 2017년에 발행된 유방학 저서는 국내 130여명의 유방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저술하였으며, 유방 질환 및 유방암의 진료에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을 약 1,050페이지에 걸쳐 방대하게 담았다. 김권천 교수와 김유석 교수는 특히 이 저서에서 유방암 중 특이 암으로 분류되는 '엽상종양과 비상피세포 유방암'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했다. 김권천 교수는 "이번에 출간된 교과서는 유방암 분야의 방대한 지견이 수록됐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에게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과 김삼철 교수가 의학의 전반적인 최신연구와 전세계 의료혁신을 목적으로 한 E SCI와 SCOPUS등재 국제학술지인 "Australasian Medical Journal(AMJ)"의 편집위원에 선정됐다.

가정의학과 김삼철 교수,  
국제저널  
편집위원에 선정

가정의학과 김삼철 교수

김삼철 교수는 AMJ 편집위원은 물론 각종 국외 학술지의 편집장과 편집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학술 및 임상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김삼철 교수는 메이요클리닉 완화의학/가정의학, 노스다코타 주립의대 통합의학/가정의학을 연수하였고, 아주대의료원과 서남의대를 거치며 다양한 임상경험을 축적하였으며, 2015년부터 조선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웰빙통합의학클리닉을 광주, 전남 최초로 개설하여 통합적 진료 및 연구에서 그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의료  
칼럼

## 고령층에 따라 붙는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 ▶ 75세 이상 대부분 발생... 가족력·비만증에도 큰 영향
- ▶ 체중관리·운동 등 도움... 초기 극단적 진단·치료 중요



최근 고령 인구가 늘며 이에 동반되는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 많은 치료 지침과 방법이 온갖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지만 치료 방법 및 선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현재 공인 받고 있는 관절염의 원인 및 치료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 하고자 한다.

관절염이란 관절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 연골이 파괴되는 것인데, 그 원인으로는 노화와 동반돼 가장 흔한 퇴행성 또는 골성관절염이 있고, 골절이나 반월 연골판, 인대 손상 후 발생하는 외상성 관절염, 그 외 자가면역질환의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퇴행성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관절의 변형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 즉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등에 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초기에는 활동 시에만 부종과 통증이 악화되나 후기에는 변형과 근력 약화 등으로 인해 휴식시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중의 하나이다. 관절염의 빈도는 55세 이상의 약 80%, 75세 이상에서는 거의 전 인구가 퇴행성관절염을 갖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많다.

발병의 원인은 노화현상과 호르몬의 영향, 유전적 요소, 가족력, 비만 등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체형상 오다리(내반슬)가 많고 좌식 문화의 영향으로 특히 무릎관절에 빈도가 많다.

증상으로 통증은 대개 서서히 오며 초기에는 활동 때만 오지만 나중에는 휴식 때에도 통증이 발생하며, 말기가 되면 체중부하 때 통증과 갑작스런 휘청거림, 부종, 강직(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완전히 굽힐 수 없는 상태)이 발생 할 수 있다. 퇴행성관절염이 진행할 경우 슬관절의 모양에 변화가 발생하는데 'O'자형 다리로 변화가 되어 무릎과 무릎 사이가 붙지 않게 되고 무릎의 크기가 커진다.

전통적인 진단법으로 체중부하 슬관절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해 관절간격의 감소 정도와 관절내의 골극의 변화를 보고 짐작할 수 있다. 관절염의 치료는 체중관리, 규칙적인 운동, 약물, 수술, 물리 치료 등이 있다.

규칙적인 운동치료는 초기나 진행된 관절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

는 필수 요소이다. 운동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관절 주변 근육에 힘을 주고 있다가 때는 등척성 운동과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칭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가볍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관절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운동의 강도는 관절에 통증이 나타나지 정도의 강도로 한다. 약물치료는 통증완화를 위한 소염 진통제가 가장 대표적이며, 장기 복용 시 위장관 또는 심혈관 합병증에 유의해야 하나 효과면에서 우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이와 같은 합병증이 적은 여러 약물이 시도되고 있어 아보카도와 콩에서 추출한 약제나, 국내에서는 한방 재료에서 추출해 진통효과를 얻고, 기전상 연골을 보호할 수 있는 약제가 시판되고 있으나 효과의 발현시간이 늦어 급성기 통증에는 효과가 적을 수 있다. 또 최근 비수술적 치료로 관절강 내 주사치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스테로이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하는 일명 뼈주사는 슬부 관절염의 급성기 증상을 줄이는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으나 관절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주사만 반복할 경우 오히려 질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며, 감염의 기회 또한 증가하게 돼 반복적인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수술적 치료는 초기의 관절염에는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연골의 변연 절제 및 세척술과 함께 슬관절의 각 변형을 교정하는 절골술이 있으며, 적은 범위의 전층 관절연골 손상에는 미세 절골술이나 관절연골 이식술로 넓은 범위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전층의 관절 연골 손상이 내·외측 또는 양측 구획 모두를 침범하는 광범위한 관절 연골 결손이 발생한 진행된 관절염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 인공 관절 치환술은 그 효과 및 결과가 입증돼 있는 수술이나 적절한 적응증의 환자에게 시술해야 하고 정확한 기술을 요한다. 수술 후 만족도를 결정하는 인자 중 수술 전 관절염의 진행정도 및 통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관절연골은 초자 연골로 구성돼 있으며 성상은 우유 빛의 밝은 색을 띠고 있으며 탄성이 있어 충격 흡수를 하나 일단 손상이 되면 재생이 되지 않는다. 관절연골의 손상은 연령의 증가에 의한 퇴행성 과정으로 성상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나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이나 인대 손상, 관절 내 골절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슬관절의 부종이나 불안정증, 보행 시 통증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한다면 말기의 관절염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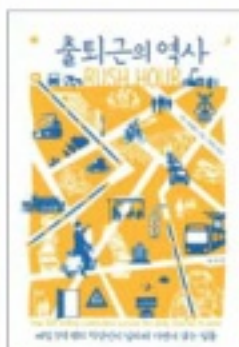


정형외과  
김동휘 교수

## 출퇴근의 역사

이언 게이블리 지음 / 박종서 옮김

추천  
도서



매일 5억명의 직장인이 일하러 가면서 겪는 일들

직장인들에게 '출퇴근'은 숨 쉬는 공기보다도 같이 익숙한 매일의 전쟁이다.

「출퇴근의 역사」는 이렇듯 현대 사회의 필수 요소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출퇴근'에 주목한 독특한 사회·문화사 책이다.

산업혁명과 철도의 발달로 일터와 집이 분리되면서 '통근'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통근으로 인해 옷차림, 주거, 여가의 패턴도 바뀌어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글로써 재치있게 보여준다.

이책은 바쁘게 살고있는 직장인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있던 출퇴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병원  
소식

## CHOSUN UNIVERSITY HOSPITAL

조선대 의과대학 15회 졸업동기회,  
조선대병원에 발전기금 전달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15회 졸업동기회(회장 반영수)에서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에 발전기금 일천만원을 전달했다. 9월 26일 조선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강동완 총장 및 이상홍 병원장 등 7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의과대학 15회 졸업동기회의 30주년을 기념하여 조선대학교에 일천오백만원, 조선대병원에 일천만원을 전달했다.

반영수 졸업동기회장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으로서 모교와 병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대단히 기쁘다."며 "지역 인재양성 중추기관인 조선대학교와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조선대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 튼튼정형외과병원,  
조선대병원에 발전기금 전달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이 광주 튼튼정형외과병원(원장 임강철)로부터 발전기금 일천만원을 전달받았다.

10월 26일 오후 4시 조선대병원 원장실에서 이상홍

병원장 및 튼튼정형외과병원 임강철 원장을 비롯해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병원에 발전기금 일천만원을 전달했다.

이상홍 병원장은 "조선대병원의 발전에 도움을 주신 튼튼정형외과병원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지역민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손 위생 우수직원 시상식 (2017년 2분기)



- ▶ 최우수상(3명) 정형외과 김동휘 교수, 교육연구부 송예준 인턴, 특수부서간호팀 김가영 간호사
- ▶ 우수상(5명) 외과 류성현 전공의, 교육연구부 정도윤 인턴, 병동간호2팀 양혜리 간호사, 병동간호1팀 정세희 간호사, 재활치료팀 최규태 물리치료사

## 조선대학교병원 발전기금 약정현황 (2017. 9. 1. ~ 10. 31.)

(단위: 원)

번호	소속	성명	약정금액	누계
1	조선의대 15회 동기회		10,000,000	10,000,000
2	튼튼정형외과병원	임강철	10,000,000	10,000,000
3	병원장	이상홍	540,000	27,440,000
4	대외협력실장	이준명	540,000	17,248,500
5	응급의학과	조수형	540,000	20,640,000
6	소아청소년과	양은석	540,000	3,040,000
7	순환기내과	기영재	540,000	3,142,700
8	외과	김민성	540,000	2,535,800
9	대외협력실	문봉주	540,000	16,600,700
10	간호부	김경애	540,000	10,634,640
11	대외협력실	이경	540,000	7,762,260
12	대외협력실	송성애	540,000	6,124,100
13	대외협력실	양명훈	540,000	1,540,000
14	대외협력실	김현욱	540,000	540,000
15	대외협력실	김유경	540,000	540,000
16	중환자실	안영준	540,000	540,000
17	총무부	하동욱	300,000	6,248,390
	합계		27,860,000	

◆ 조선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건학 100년**의  
새로운 주인공입니다.



CU Again  
7만2천  
발전기금 모금캠페인

조선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모금캠페인

★ 참여방법 : 10만원 이상 참여 가능하며, 입금 후 기획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납부방법 : 온라인입금 또는 직접 납부

- 온라인입금계좌

광주은행 002-107-000819, 예금주 : 조대병원

농협중앙회 605-01-009496, 예금주 : 조대병원장

- 직접 납부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실(10층) 방문

★ 문의 : ☎ 062) 220-3732 Fax. 062) 227-3215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실 발전기금담당

★ 혜택 :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이며, 국가가 인정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영수증에서 제공하는 기부자 혜택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